

버크셔 해서웨이 2024년 주총 토크아보기(KBSTAR 버크셔포트폴리오 TOP10)

■ 매년 5월 초 오마하에서 열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서 워렌 버핏은 주주들과 자신의 인생철학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생각, 투자 계획 등을 공유. 세계 각지의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모이고 부대 행사로 바자회와 마라톤 등이 열려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음. 이번 주총은 버핏의 오랜 파트너인 멩거 부회장이 사망한 후 열리는 첫 주총으로 주목받음

■ 이번 주총 Q&A의 키포인트는?

1) 애플 지분 축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 버크셔 해서웨이는 1분기 중 애플 지분을 13%(약 1.16억주) 추가로 매각. 버핏은 ‘세금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 기업에 대한 장기 전망이 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 또한 ‘일부 매도했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 내 최대 종목은 애플일 것이며 사업모델은 코카콜라, 아메리칸익스프레스보다 더 낫다’라고 언급
 :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뱅크오브아메리카 등 5개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79%를 차지하며 현금성 자산은 단기 국채 등에 투자. 현금 보유에 대해 단지 매력적인 것들이 없어 투자하지 않는다고 언급

2) AI=핵무기=램프 밖 지니?

: AI를 2차 세계대전 당시 발명된 핵무기와 램프 속 지니에 비유. 램프에서 나온 지니(핵무기)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AI도 비슷하다며 부정적인 견해 밝힘
 : AI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잘못 쓰이게 되면 해악을 끼칠 수 있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고 함

3) 달러화의 대체재는 없어

: 미국의 공공부채가 급증하며 시장이 미국채 공급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버핏은 대체재가 없다는 낙관론으로 응수. 국가 부채는 양의 문제로 측정할 수 없으며 각 통화별로 경험하게 될 인플레이션도 문제인데 이 경우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가 없다고 답변
 : 연장선상에서 주요 투자처는 항상 미국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에 대한 경계적 태도 유지. 또한 미국과 규제나 문화적 부분이 흡사한 캐나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출처: 신영증권, 언론 보도자료)

2024년 주총 현장 ▶



※ 출처: 중앙일보, KB자산운용

ETF TOP 10 편입 종목 ▶

종목명	비중(%)
Berkshire Hathaway Inc	26.20
Apple Inc	23.75
Bank of America Corp	11.67
American Express Co	10.09
Coca-Cola Co/The	7.51
Chevron Corp	5.89
Occidental Petroleum Corp	4.53
Kraft Heinz Co/The	3.73
Moodys Corp	3.03
DaVita Inc	1.32

※ 출처: KB자산운용, 2024. 5. 7 기준

버크셔 해서웨이와 S&P500 연율화 수익률 ▶

	버크셔 해서웨이	S&P500 (배당 포함)		버크셔 해서웨이	S&P500 (배당 포함)		버크셔 해서웨이	S&P500 (배당 포함)		버크셔 해서웨이	S&P500 (배당 포함)
1965	49.5	10.0	1980	32.8	32.3	1995	57.4	37.6	2010	21.4	15.1
1966	(3.4)	(11.7)	1981	31.8	(5.0)	1996	6.2	23.0	2011	(4.7)	2.1
1967	13.3	30.9	1982	38.4	21.4	1997	34.9	33.4	2012	16.8	16.0
1968	77.8	11.0	1983	69.0	22.4	1998	52.2	28.6	2013	32.7	32.4
1969	19.4	(8.4)	1984	(2.7)	6.1	1999	(19.9)	21.0	2014	27.0	13.7
1970	(4.6)	3.9	1985	93.7	31.6	2000	26.6	(9.1)	2015	(12.5)	1.4
1971	80.5	14.6	1986	14.2	18.6	2001	6.5	(11.9)	2016	23.4	2.0
1972	8.1	18.9	1987	4.6	5.1	2002	(3.8)	(22.1)	2017	21.9	21.8
1973	(2.5)	(14.8)	1988	59.3	16.6	2003	15.8	28.7	2018	2.8	(4.4)
1974	(48.7)	(26.4)	1989	84.6	31.7	2004	4.3	10.9	2019	11.0	31.5
1975	2.5	37.2	1990	(23.1)	(3.1)	2005	0.8	4.9	2020	2.4	18.4
1976	129.3	23.6	1991	35.6	30.5	2006	24.1	15.8	2021	29.3	28.7
1977	46.8	(7.4)	1992	29.8	7.6	2007	28.7	5.5	2022	4.0	(18.1)
1978	14.5	6.4	1993	38.9	10.1	2008	(31.8)	(37.0)	2023	15.8	26.3
1979	102.5	18.2	1994	25.0	1.3	2009	2.7	26.5	1965~ 2023	19.8	10.2

※ 출처: 신영증권, BERKSHIRE HATHAWAY INC(2023 Annual Report), KB자산

※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투자광고 2024_506(다)'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전략 및 투자 프로세스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